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연구부는 2018년 1월 21일 북중 접경지역 현지 전문가 네 분을 초청하여 ‘북중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경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현지에서 느끼는 대북제재의 영향, 최근 북한경제와 북중무역, 2018년도 북한경제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다만, 본 협의회에 참석한 현지 전문가는 단둥 및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에 신변노출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1월 21일(일) 오후 4시, 중국 단둥

사회

이석(KDI)

중국 측 토론자

백두원(사업가), 손선재(사업가)

최진해(사업가), 김명순(교수)

한국 측 토론자

이석기(산업연구원), 임강택(통일연구원)

이석: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현재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높아진 상태이며, 특히 현재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북중관계와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제재 여파를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부와 연구자들 간에 공유하는 차원에서 금번 좌담회를 기획하였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겠다. 현재 중국이 강화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작년 이후로 북중 간 경제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진해 선생님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진해: 중국이 실제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집행하는 상황이 2017년 들어 확연히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의 품목들이 구체화되고, 소위 민생부문까지 확대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섬유부와 수산물부이다. 제재 대상 부문이 내용적으로 달라졌고, 중국 세관의 실질적인 집행 태도가 그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현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사람의 일부가 느끼기에 2017년 이전과는 너무 다르다. 작년부터는 이게 진짜 제재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사실 그 전에는 제재 내용이 군사부문에 국한되어 있었고, 일단 내용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무역을 하는 주체로서는 대북제재 내용조차도 잘 몰랐다. 군사 물품을 취급하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알지 못했다. 교역 물품이 일부 군사 물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물질, 기계 부품일 경우 대북제재 영향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실제로 북중교역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대가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북중교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와 수산물이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관 되어 있다. 특히 섬유부문에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액수로 볼 때는 천연자원이나 수산물이 더 크다고 하지만 섬유는 수십만 북한 노동자의 일자리 및 생계와 관련이 있고, 아이템의 특성상 소규모 업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 업체, 부자재 업체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수산물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단둥이라는 곳은 강과 바다를 낀 도시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북한과의 수산물 교역이 아주 활발했다. 실제로 단동의 회사들이 신의주와 해주 앞바다에 양식장을 건설하고 교역을 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항상 해주항, 송림항, 단동항 사이에서 수산물을 운반하는 북한, 중국 국적의 운반선들이 정기적으로 왕래했었다. 그런 실정에서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다만, 수산물은 생물 아니면 활어 형태라서 육로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교역 자체가 예전부터 약간 반 밀수적인 형태를 보였다. 물류 시간, 냉장·냉동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상교역을 하거나 작은 운반선을 이용한 반 밀무역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단동에 작은 항구가 수십 개가 있는데, 중국정부에서는 변민무역이라고 해서 민간영역으로 두고 받은 묵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해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배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수산물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섬유에 비해서 제재 이후에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섬유부문은 심각하다. 완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2017년 이전의 제재와 이후의 제재는 내용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석: 그렇다면, 섬유와 수산물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진해: 북한에서 나오는 섬유 완제품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물론 밀수 가능성은 있다. 수산물도 완전히 차단되었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 교역 관행상 밀무역 형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섬유에 비해서 크지는 않다. 물론 교역량은 매우 줄었을 것이다. 대북제재 이후에 몇 퍼센트까지 감소했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수산물은 어느 정도는 교역량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거래는 거의 중단되었을 것이다. 공식적인 거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비공식의 영역이 수산물은 좀 컸고, 섬유는 비공식적인 영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사업을 계속 하려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부분을 개척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리스크가 있다.

이석: 단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연결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백두원: 연결은 주로 나진에서 나오는 권하통상구를 통해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한다. 여기도 앞서 말씀하신 단동과 마찬가지로 차량이 옛날에는 300~500대가 통행했는데, 최근에 제가 방문하였을 때 차가 10~20대로 완전히 줄었다. 제가 가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관찰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은 중국정부 측에서 유예기간을 한달 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통보를 하니까 수산물을 실은 수산물 운송차 몇십 대가 교두에 갇혔었다. 그래서 결국 상인들이 수산물을 땅에다 파묻고 언성을 높였었다. 연길에 못 들어가니까 여러시간 해제 건의 했으나 정부 기관에서 해제요구를 제압했다. 중국 측은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광산물의 경우 북한 내 광산으로부터 광물을 일체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광산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훈춘에 큰 복장 기업이 있는데, 원래 3만명을 고용하려고 숙소 아파트, 공장 3동을 지었는데 지금은 2,800명밖에 없다. 시설은 다 갖춰 놓고 신규 인력이 못 들어오니까 그 회사도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나머지 인력이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나진시에서는 연말에 상무부에 등록된 중국 독자기업들이 전부 철수했다. 예를 들어, 나진에서 사업을 하는 연길제조공장이 있었다. 중국에서 관리자가 파견 나가 있었고 자동시스템 공정으로 북한 현지인들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전부 철수했다. 중국 대련이나 절강에 있는 400~500명 규모의 수산물 가공업체들도 다 철수했고 직공들은 다 휴가조치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둥과 연길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고, 중국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석: 단둥과 연길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중국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현재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변한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선재: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 6월부터는 중국정부가 대북제재를 심각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예전에는 북한에 장사하러 갈 때 담배, 과일 같은 것은 자기네들 수하물이니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 보통 담배 5~10보루는 가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는 그것마저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통제가 매우 엄격해졌다. 수산물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을 물면 벌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달러를 트럭에 숨겨 중국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살이 뒤편다. 개인이 왕래하는 보따리 장사 화교들도 친척 방문 목적인데도 전기밥솥, TV 등 전자제품 하나도 북한으로 못 들고 가게 한다. 예전에는 한국 상표는 못 들어가게 막는 정도였고 쌀, 기름 이런 것은 많이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중국산도 가져갈 수 없다. 친척 방문 목적으로 치약, 칫솔과 같은 일회용품, 양말, 과자, 신, 옷 정도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갔었던 것을 이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밀수와 관련해서는 두만강에서 1,300km 정도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데 밀수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정도 길이의 국경을 군인들이 하루 종일 지키는 것은 어렵다. 예전에는 바다에서 정식 교역도 있지만 밀수가 많았고, 밀수로 떼돈들 벌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니까 세금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쪽에 어업권을 샀던 사람들 중에는 횡재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안 된다. 무역은 하다가 망했다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밀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큰 배의 몇십 톤 물건을 다 몰수당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밀수가 거의 없어졌지만, 아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석: 단둥(압록강), 연변(두만강) 지역의 기본적인 교역은 다 막혔고, 다만 북중 접경지역이 넓어서 밀수를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해주셨다. 중국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 같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북중 간 경제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순: 앞서 압록강, 두만강 지역 도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북중무역의 70~80%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변지역이 나진경제특구 지역이라 물동량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말~2017년 초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재를 강력하게 한다고 했지만, 물동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 이후부터 중국에서도 대북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졌고, 상황이 급속하게 변했다. 물동량은 2017년 11월 말부터 두 달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나진-연변 간 권하통상구의 물동량이 이전보다 최소 70~80%가 줄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 장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품목들과 관련해서는 섬유와 화학가공제품은 완전히 끊겼고, 수산물의 경우는 소량 또는 개인적으로 교역하는 것은 있지만 상인들이 대량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막혔다. 건축자재도 거의 막혔는데, 특히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건축자재 이런 것은 다 막혔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져 갈 수 있는 물건은 농산품과 특산품 정도이다. 지금 상황에서 장사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확실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는 달라졌다. 대북제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은 북중 간 거래를 하던 기업들이다. 새로운 기업 허가가 안 되고, 기존에 중국에 들어온 북한 기업들도 재협상 없이 시간이 되면 철수해야 한다. 중국 기업이 북한으로는

거의 가지 않고 있다. 실례로 연변의 한 큰 기업이 지난해 초에 무산광산에서 완전 손을 뗐다. 다른 분이 이를 인수해 사업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 지금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인력은 금년 6월부터 합동기한이 되면 철거해야 한다. 빨리 들어온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어서 기업마다 철수 시기는 다르나 순차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연장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정부의 입장이라면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 인력이 그 동안 벌어들인 돈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다 빠져나가면 북한 쪽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석: 종합해보면 작년 북한의 9월 제6차 핵실험 이후부터 중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하게 시행되기 시작했고, 물동량이 줄어 현재 정상적인 교역이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 북중 간 기업 투자도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셨다.

김명순: 길림성과 나진 특별시가 환동해권 개발 목적으로 2010년도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었다. 북한 내부 사정과 관련해서 나진시에 있는 시장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달 안에 북한에 들어올 물건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개인적으로 북한 상인들이 중국에 나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갈 재력이 없다는 것을 전해들었다. 이전에 거래했던 방식은 북한 상인이 상당한 양의 수산물이나 기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현찰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물건을 되사가지고 갔다.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에서 다시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갖고 나올 것이 없어서 들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제재가 심하지만 방식이나 원단 같은 것은 돈이 있으면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이마저도 사갈 돈이 없고 신용이 약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나진시장의 경우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석: 대북제재 이후 북중 접경지역의 현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북한 사람들이 대북제재의 여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백두원: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들었다. 바이오 비료, 무공해 농약, 종자 등 농업 신기술을 전격적으로 개발하고, 농업 생산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관련 팀들이 나와서 이런 기술을 가진 중국 기업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중국에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자력갱생을 위해서 신기술 농법, 종자, 비료 등 기술을 습득하려고

중국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식량,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핵을 개발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 가보자는 태도인 것 같다.

김명순: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영도하에서 태양, 공기, 물만 얻게 되면 어떤 제제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아주 자신감 있게 이런 표현을 한다. 경제강성국가 내용을 보면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자강주의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경공업을 비롯한 상당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을 달성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가졌던 것 같다.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5년간 어느 정도는 키웠다는 것이다. 재작년에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나온 향후 5개년계획을 들어보니 핵심내용 중 하나가 농산·축산·수산을 3대 축으로 해서 인민생활을 향상·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목표는 인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 마련이었다. 국가 인민경제 발전의 기강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술한 경제지표들을 만들고 있다. 물론 이 지표들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축산업은 어떠한 경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내용만 말하고 있다.

이석: 북한 정권 내부에서는 농산·축산·수산의 3대 축으로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변에서는 중국의 종자, 비료 등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신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동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진해: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일단,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은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빨리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자는 입장인데, 사실 대북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다. 대북사업을 계속 하든 아예 포기를 하든 빨리 결론이 나길 바라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입장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회의감이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난 십 년간 북한 사람들은 강한 내성을 키워왔다. 단동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신의주를 바라보면 그 변화를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쪽에 엄청난 고층빌딩들이 올라왔고,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예전과 다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언론에서는

제재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확대·과장보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쉽게 제재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나타나더라도 올해 상반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제재 효과는 심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상당히 내성을 키워 왔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버티면서 그 안에 국제질서와 여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또 어떤 태도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관여 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최대한 버티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들었다. 중국은 이민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 내 투자 기업이라든지, 취업비자를 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에게 거류증을 발급한다.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이 거류증을 다 발급받는다. 그리고 외국인도 거류증 연장만 하면 중국 밖으로 평생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 사람 중에 10년 넘게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장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에 취업한다는 형식으로 거류증 연장신청을 하면 중국정부에서는 거짓말인지 다 알지만 허가를 내줬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연장이 되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석: 북한 사람들이 자력갱생에 집중하고 있고, 주민들은 중국정부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도 느낀다고 들었다.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덧붙여 의견을 부탁드린다.

손선재: 북한 사람들은 원래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은 안한다. 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또 보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중국 사람들보다도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다만, 지도부와 같이 북한 권력층에서는 현재 돌아가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신의주 장마당이 몇 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제는 북한산(국산)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산 제품들이 4~5년 만에 포장이나 질이 너무 좋아졌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중국 빵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시장을 채웠는데 이제는 못 들어간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산 빵의 질이 좋지 않아서 북한 사람들이 사먹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통되는 빵들은 어떤 큰 그룹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가내 수공업식으로 값을 싸게 해서 만든 것인데, 중국에서도 불법인 것을 북한 장마당에 파는 것이라 질이 좋지는 않다. 실제로 북한산 빵의 질이 훨씬 좋다고도 한다. 맥주도 중국 두메산골 가게에서

5~6월에 파는 것을 특별 제조해서 3원 정도로 북한에 보낸다. 물론 대동강 맥주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중국산 술도 북한산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 신발은 ‘한주일 신’이라고 하며 중국 신발은 일주일 신으면 망가진다고 말한다고 한다. 아까 말씀하신 자력갱생과 관련해서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면 잘한다는 자존심이 크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의주 장마당에서 ‘왜 중국산만 있는가 북한산도 좋은 것이 많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건을 들여놓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네 상품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석기: 신의주 시장에서 빵, 맥주, 신발과 같은 북한산이 많이 팔린다고 말씀하셨다. 이 외에 북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선재: 화장품이 있다. 예전에는 북한산 화장품이 민망할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화장품도 얼마나 정교한지 모른다. 중국산 포장보다도 훨씬 좋다. 북한 물건이 많이 발전되었다. 옷은 그래도 중국산이 많은 편이다.

김명순: 지난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방직 공장에 갔었다. 평양방직공장에서 공식적으로 걸어놓고 생산되는 상품 종류가 270여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옷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쪽에 물어보니 공장에서는 살 수 없고, 백화점에 똑같은 상품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니 비슷한 제품이 있었고, 공장에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옷들도 디자인을 포함해서 참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 옷들은 한국 제품이랑 구분이 안 될 만큼 발전했다. 그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경공업 분야 중 상당한 부분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일 큰 식료품 공장으로 새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평양식료품공장과 평양양말공장이 있고, 또 김정숙방직공장에서 가방을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들었다. 중국에 의존하던 가방용 원단이 국산화되었기 때문에 북한 시장 내로 물건의 상당히 풀렸다는 것이다.

2010년에 북한에 갔을 때 80% 이상이 중국산이었는데, 작년에 평양에 갔을 때 북한산 규모가 엄청 늘어난 것을 목격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전제품 쪽은 국산화가 약한 것 같고, 경공업 분야에서는 옷부터 일용품까지 국산화 제작이 많이 가능해진 것 같다. 신발, 양말, 옷, 장난감, 식품 이런 분야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북한산 물건들이 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다.

이석: 임강택 박사님은 제재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임강택: 한국에서 접한 대북소식들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북한 시장에서 제재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석탄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1년 넘게 제재가 강화되어 왔기에 올해는 제재 효과가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동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어떤 식으로든 강화되리라고 예상했을 것인데, 최소한 2~3년 동안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 내지는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현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석: 임강택 박사님께서 새로운 시각의 질문을 제기해주셨다.

이석기: 현지에 나와 있는 북한의 수입업자들의 동향이 궁금하다. 통계를 보면 특히 작년 8월부터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진해: 최근 1주일 사이 철과 강철이 들어가는 모든 설비에 대해 중국 해관이 통제에 나서기 시작해 기계설비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외화부족 때문인 것은 아니고, 중국 측에서 수출을 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명순: 화공 제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통제로 인해 수입규모가 급감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비료는 민생부문에 별도로 취급해 사정이 조금 다를 것이다.

백두원: 나진을 제외한 삼합, 개산툰 지역에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어 사정을 잘 모르겠다.

이석: 현재 상황은 중국이 제재의 강도를 높이면서 북중 간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북한 내부 경제상황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변화 내용이 궁금하다.

김명순: 북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장을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던 김정일 시기와 달리 지난 5년 동안 북한경제는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정책을 실현해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한다.

실질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곳은 농업과 경공업 분야이다. 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5개년계획을 통해 곡물 생산량을 700만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이 달성되면 기본적으로 식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측에서는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다.

공업 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는 기업소가 국가지표를 교체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과거 계획경제에서는 국가지표가 100%였던 반면, 기업관리 개선조치가 도입된 이후에는 국가지표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업지표가 늘어났다. 실행 과정에서 양자를 교체하여 기업지표를 늘릴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율권이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기업 활성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업지표에서 나온 자주 권리로 기업이 생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직매장이 많이 늘어났고, 경공업 분야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보통강 백화점을 방문해서 깜짝 놀랐던 것은 2012년도 방문 때는 대부분 중국산이었던 것이 이제는 식료품 매대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산이며, 옷을 비롯한 다른 상품들에서도 북한산의 비중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경공업 분야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자강도 연합기업소에서는 CNC 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소와 강철기업소의 설비들을 광범위하게 교체시키는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실행 중에 있다고 한다. 그만큼 자강력이 많이 높아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지식경제라고 풀이되는, 과학기술을 우선시하는 경제발전 모델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기술창신과 자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제재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지만 지난해 방문에서 시장이나 기타 형태를 통한 제재의 효과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석: 김명순 선생님께서는 지난 5년간 북한경제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자체 경제기반을 갖추어왔고, 경공업과 농업분야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도전적인 목표도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최진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최진해: 단둥에서 대북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족 분들이 행사 때마다 북한에 초청

받아서 다녀오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건설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음식점 운영 등 상업적 분위기도 활기를 띠어 평양 시내가 상당히 변했다고 입을 모은다. 평양 수도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원산 쪽으로 개발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신의주만 봐도 현재의 풍경은 최근 3~4년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많이 올라왔고, 강변 쪽에도 15~20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요즘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 것도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 광물제재 이후 전기를 파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무상공급이 아닌 판매 시스템 하에서 오히려 전기 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신의주가 경제력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김명순: 전기부문을 완전히 시장화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각 기관에 국가계획을 준수하는 한에서 전기 일부를 팔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자 시장을 통해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전기가 공급된 것이다.

이석: 나진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백두원: 나진은 현재 채류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100달러씩 받고 있다. 한 달간 유효한 비자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10달러 선에서 시작하여 값이 올랐다. 기름은 kg당 13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택시와 기업소가 사용하는 기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소에 구매, 생산, 판매권을 부여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표량만 달성하면, 그 이외의 물건은 장마당에 나와서 순환이 된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북한 군수공업의 물품들을 판매해서 지도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은이 만든 놀이마당에도 경제력이 있는 무역상, 외교관들이 와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이 역시 다 수뇌부로 들어가게 되므로 지도부의 경제기반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손선재: 석탄이나 수산물 수출 제재로 해당 물품들이 싼 가격에 시장에 나오면서 국민들 생활은 오히려 윤택해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석: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중국의 대북제재로 양국 간 거래는 축소되었으나 북한경제는 자력갱생으로 버티어 나가거나 최소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중국정부의 선택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하게 실시해 보았으나 큰 영향이 없으므로 다시 제재 강도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강한 제재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진해: 제재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분명하지만, 경험상, 그 기간과 정도는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건국 정통성과 관련된 혈맹관계와 자국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동북3성은 서부 신장지역에 다음가는 변방으로 인식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핵심이 북한과의 연계였다. 제재가 장기화 되면 동북3성 기업과 주민들의 불만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정치 특성상 수산물 반입 중단조치 이후 훈춘에서 데모가 한 차례 일어났던 것 밖에는 불만이 표출된 사례가 없지만, 쌓여가는 불만을 중국정부가 모를 리 없으므로 장기 제재를 두고 중국정부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손선재: 중국정부도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한다. 이전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게 되거나, 미국의 선제공격이 아니더라도 핵 관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핵 오염물질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실 단둥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은 이번 제재만이 특별히 더 큰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잘 될 것 같으면 제재가 가해지고, 겨우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막히는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단둥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여기에 면역력이 생겼다.

김명순: 얼마나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무역 제재가 올 때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가기 힘들다고 본다.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3가지 대북정책 기조인 不戰, 不亂, 無核(평화, 안정, 핵폐기)에 어긋난다. 이제 중국에 남은 제재 항목은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 중단이나 밀무역의 완전한 차단 등 핵심적인 것뿐인데, 이를 실행할 경우 북한 내에 큰 경제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기타 제재를 동원해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전체 경제진흥전략에서 동북3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동북지역의 발전 없이는 중화민족의 부흥도 어려울 것이고, 동북아 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동북지역의 발전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동북3성은 전통적으로 장비공업의 중심지였으나 대외개방이 막혀 있다는 지리적 약점으로 많이 뒤처져 있다. 대련 항구를 통해 요녕성 쪽은 개방되어 있으나 길림성과 흑룡강 쪽으로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두만강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양쪽으로 창구가 생긴다면 동북지방이 더 개방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석: 마지막으로 백두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백두원: 저도 적극 대화론자이다.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남녀가 만나야지 결혼을 하듯이 만나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다.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날 지진이 일어난 듯 진동이 엄청났었고, 굉장히 무서웠었다. 한국에서는 아마 느끼실 수 없는 것을 체험했다.

이석: 다음으로 임강택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임강택: 앞서 네 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하지만,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제재로 인해 북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무역을 통해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주체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시장이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어도 북한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난의 행군’때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서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 대응하며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중국의 대응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도발은 하되 중국을 자극할 만한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핵을 가지고 미국과의 줄다리기는 계속하겠지만, 미중 간의 틈새를 이용해 전략적인 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당분간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당분간은 대화 국면을 주도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다른 핵심은 미국인데, 미국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때 중국이 난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의 노력이 더욱 부각될 것 같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군사적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비하는 것인 당연한 과제인 것 같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어 제재 국면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석: 마지막으로 이석기 박사님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석기: 제재가 이루어지면 결국 일반 주민들은 영향을 받는다. 여차하면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무연탄 수출을 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외부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무연탄 수출을 내각이 아니라 군이 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무연탄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 부분 시장에 유입되었다. 그런데 그 돈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는다면 설사 시장에 무연탄이 많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거래가 없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없는 상태는 경제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북한경제가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타격은 시장에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반 주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불확실하기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북한 자신도 모르고 외부 세계는 더욱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작년 말과 재작년을 비교하면 신의주 시장에서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는지. 단둥 무역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매대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입장을 아시는 게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선재: 몇 달 전 신의주 분들이 말하기를 원래 북한에는 음식 배달 같은 게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생겼다고 한다. 가스통도 배달한다. 생일, 결혼식 같은 행사를 보통 집에서 해왔었는데 이제는 호텔이나 외부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이렇다고 하여 과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섬유산업이 활발하다고 해서 실제 국민들이 시장에서 그런 옷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일반 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석: 여러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북한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시장의 사진을 보신다. 이렇듯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지 이야기를 직접 듣다보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